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 ‘노동력 극적 절감’ 장성군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호평

### 농약 방제횟수·사용량 줄여 농업인 부담 경감



장성군의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사업이 모내기철을 맞은 농업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 3월부터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사업을 실시해 호평을 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과거에는 벼 병해충을 방제하려면 이앙 후에 눈에 들어가 힘들게 농약을 살포해야 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모내기 전날이나 당일 모판에 살균제와 살충제를 혼합한 육묘상

자처리제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도열병과 흰잎마름병, 벼물바구미 등 벼농사 초기에 큰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전년도에 많이 발생한 병해충을 고려해 약제를 살포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육묘상자처리제의 약효 지속기간은 60~120일로 7월 하순까지 방제 효과가 지속된다.

육묘상자처리제 활용 기술은 경제성과 편의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장점이 있다. 극적인 노동력 절감, 병해충 사전방제, 농약 방

제횟수 및 사용량 줄이기 등의 측면에서 벼농사에 큰 전환을 가져왔다.

장성군은 쌀값 하락과 경매비 상승에 따른 농업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약제의 절감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달 희망약제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이월부터 각 농가에 육묘상자처리제를 본격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농업인 이모(45)씨는 “모내기 전에 육묘상자처리제를 살포하면 확실하게 농약 사용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노동력 절감에 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장성군의 지원을 적극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모내기를 완료하기 전까지 추가 신청을 하면 육묘상자처리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면서 “육묘상자처리제 살포로 초기 병해충을 예방하고 벼농사 후기에 발생하는 벼물바구미,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은 공동방제를 통해 해결해 장성군 쌀 생산량 및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육묘상자처리제와 농약 공동방제 외에도 맞춤형 비료와 못자리 상토 지원 등의 쌀농사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신안군 팔금면, 지역민에 ‘찾아가는 영화관’ 선물

신안군 팔금면은 지난 28일 오후 7시 팔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화관’을 열었다.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은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주최·주관하고 전라남도에서 후원하며 평소 문화생활이 어려운 도서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문화나눔을 선보이는 복합 문화프로그램이다.

이 날 행사는 바쁜 농사일을 끝내고 온 주민, 팔금초등학교생,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이 모여 삼은경, 나문희 주연의 영화 ‘수상한 그녀’를 관람하였으며, 식전행사로 지역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는 영정사진 무료촬영과 트로트 가수들의 재능기부 공연을 병행하였다.

## “‘영광 물무산행복숲’에서 물 걱정 말고 약수터 물 드세요”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

영광군은 지난 3월 21일 개장한 ‘영광 물무산행복숲’ 이용객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있다. 물무산행복숲에 이용되는 물은 관정에서 나오는 지하수로 최근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47개 항목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영광군은 매 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성적서를 현장에 게시하고 있다. 물무산행복숲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유아숲 체험원에 있는 물놀이장은 먹는 물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를 100% 이용해 어린

아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숲속 물레길과 질척질척 맨발 힐링길에 있는 음수대 2개소와 화장실 2개소의 수질도 먹는 물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물무산행복숲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쓰레기 피가져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산으로 쓰레기통이 없다. 이에 따라 2명의 숲길 관리원이 매일 숲길 보수와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물무산행복숲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물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 함평군, 제8회 오당 안동숙 전국 미술대회 입상자 선정

목포여상 배연우 학생 대상...5개 부문 31명 입상

함평군이 제20회 함평내비대축제 전후를 기간으로 개최한 제8회 오당 안동숙 전국 미술대회 입상자를 지난 29일 발표했다.

전국의 유치원생을 비롯한 초·중·고등학생 1,176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배연우 학생의 ‘화양연화’가 주제 선정과 구도 설정, 꽃과 나비를 어우러지게 적절히 묘사한 점이 높이 평가되며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인 전남도교육감상에는 함평 나산어린이집 김서운 어린이의 ‘친구(꽃벌레와 나비)’가, 우수상에는 광주 진흥고등학교 이경훈 학생의 ‘비상’, 함평 나산실용예술중학교 이하운 학생의 ‘나비를 떠올리며’, 서울 구암초등학교 김도훈 학생의 ‘함평내비! 청년이 되어 세계로 비상하라’, 함평 셋빛유치원 조성미 어린이의 ‘비눗방울’이 각각 선정되며 등 총 5개 부문에서 31명의 학생들이 수상 기쁨을 맛봤다.

심사위원들은 “특히 올해 대회에 작품의 완성도와 창의성이 뛰어난 작품들이 많이 출품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올해 8회째를 맞은 오당 안동숙 전국 미술대회는 한국화의 거목인 오당 안동숙 화백의 예술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개최되는 대회로, 해가 거듭될수록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다수 참여하며 전국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입상내역은 함평군청과 군립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장과 부상은 시상식 없이 개별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함평=김광춘 기자

## 보성군, ‘대표음식 개발 및 컨설팅 용역’ 보고회 개최

보성군은 남도음식문화 여행 1번지로서의 음식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지속가능한 음식관광 자원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29일 보성군 여성회관에서 관계공무원과 음식점 영업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성군 대표음식 개발 및 컨설팅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성군 대표음식 개발 및 컨설팅 용역’은 2천만원의 사업비로 내달까지 ‘별교꼬막정식’과 ‘보성녹차떡갈비’ 등 보성을 대표하는 음식 브랜드의 소비자 신뢰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업소별 문제점 진단 및 컨설팅 제안, 영양성분 분석 등 기초조사, 소비자 입맛에 맞는 차별화된 신메뉴 개발, 표준화된 레시피 구축, 음식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상차림 개선, 상품등록 및 특허출원 등을 실시한다. 용역을 통해 개발된 메뉴와 상차림에 대해서는 희망 업소에 대해 업소별 컨설팅을 통해 보급할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는 용역사 미담창업연구소 한도연 대표가 타 지역의 음식개발 및 컨설팅 사례를 제시하였고, 업소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단품요리와 소스류 등 레시피 교욱도 결하여 진행했다.

또한, 음식점 영업주들과 함께 메뉴개발 요리 시식 등 품평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대표음식 개발 용역을 통해 관광형 향토음식의 브랜드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음식점의 맛과 서비스 품질향상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보성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 구례군, ‘숲속의 전남 만들기’ 성과 나타나

주민·단체 자발적 참여

구례군은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나무심기 캠페인 추진으로 전남도 시행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 성과가 구례군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중순에 소규모 민간단체인 ‘어울림회’에서 철쭉 700주를 기증하고, 회원 30여 명이 함께 구례로 가로화단을 조성하였으며, 구례읍 봉동구 마을회관 건립 후 남아 있는 자투리땅에 봉동구 마을주민들이 힘을 합쳐 배롱나무와 말바도리 등 수목 1,000여 주를 식재하여 텃밭공원을 조성하였다.

이들 주민과 단체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성한 숲이 훼손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물 주기, 비료 주기, 잡초 제거, 동해 피해 방지 등 사후관리를 위해 ‘숲 돌보미’를 자청하고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군에서도 관리에 필요한 작업도구 및 비료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발적인 참여로 생활권 주변에 다양한 유형의 숲을 조성하면 스스로 아름다운 지역 구꾸에 동참하겠다는 자긍심이 고취될 뿐만 아니라 주민의 휴식과 힐링 장소가 만들어지게 된다”며, “주민 스스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도시 숲 조성의 사후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2019년도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사업에도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신흥읍 오룡3길 2(전라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면담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의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맞춤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